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에서 각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적발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포상금 관련 문의

▷ 생명보험협회 02-2262-6607
▷ 손해보험협회 02-3702-8601



보험사기 신고방법



전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 4번(금융범죄 및 비리)
→ 4번(보험사기)



인터넷

보험사기신고센터
<http://fss.or.kr> 접속후
우측에 보험사기신고 클릭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기타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도 신고 가능



보험사기! 숨을 수도, 숨길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기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보험사기 공모는 물론,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절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일상생활 속 나도 모르게 당하기 쉬운
보험사기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똑똑한 보험사기 피해예방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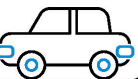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유의사항

-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세요
-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

- 불필요한 수술·진료를 권유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진료사실과 다른 진단서·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자제하시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 유의사항

-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하세요
-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이용을 자제하시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병원·정비업체에서 보험금으로
무료 서비스를 받게 해준다는데
받아도 괜찮은거죠?



NO!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 서비스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보험금 허위 청구를 유도하는 제안을 수락하면
나도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 진료·시술이나 수리를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절대로 응하지 마시고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세요.

‘차만 타도 30만원’, ‘ㄷㅋ(뒷콩) 40만원’
SNS에서 자주 모집하는
아르바이트인데 해도 될까요?



NO!

‘뒷콩 알바’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험사기 공범입니다.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어보려다 보험사기 공범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액 일당을 보장하며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해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세요.



일상생활 속 나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
‘SNS에서 보고 따라하는 것 뿐인데 문제 없겠지’
‘이 정도는 안 들기겠지?’

순간의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도수치료 패키지를 결제하면
실손보험으로 피부관리와 필라테스도
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NO!

미용·성형 시술, 필라테스와 같은 비치료 목적의
비용은 실손보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도수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른 서비스를 붙여 패키지로 판매하면
보험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물론 치료를 받은 환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보험회사에 말을 맞춰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도 괜찮겠조?



NO!

어설픈 도움이 나의 가족과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부탁을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 조작을 돕거나 방조하여
제3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